

30-273 to 30-280: 가인을 구하는 아벨의 길

hdhstudy.com/1970/30-273-to-30-280-%ea%b0%80%ec%9d%b8%ec%9d%84-%ea%b5%ac%ed%95%98%eb%8a%94-%ec%95'

가인을 구하는 아벨의 길

1970.03.29 (일), 한국 통일산업(구리시 수택리)

30-273

가인을 구하는 아벨의 길

제물을 세우는 것은 가인을 굴복시키는 비법입니다. 제물을 드릴 때는 물질적 제물, 실체적 제물, 그 다음에는 심정적 제물, 이 세 가지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평면적으로 가인에 대해서 적용하면 일시에 탕감복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정을 가진 하나님의 대신 실체로 서야 합니다. 축복의 조건을 두고 볼 때, 여러분은 예수가 소유할 수 있었고 받을 수 있었던 모든 축복 이상의 축복을 받은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심정을 중심삼고 볼 때도 여러분은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가 지녔던 심정 이상의 심정권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연필 한 자루라도 이 세상의 것보다 귀한 것입니다.

30-273

가인 복귀의 원칙

여러분은 자기에게 속한 일체의 모든 것을 가인 앞에 넘겨 줄 줄 알아야 합니다. 복귀의 원칙이 그렇습니다. 그것이 제물이라는 거예요. 즉, 자기편의 귀한 것을 넘겨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귀한 물건도 넘겨 주고 자기의 귀한 아들도 넘겨 주고, 자기 자신까지도 넘겨 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까지의 6천년 복귀역사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가인을 일시에 탕감시킬 수 있게 되었을 때 가인이 완전히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6천년을 일시에 탕감한 자리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통일교회는 가정적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갖추었다는 것입니다. 타락권 이상의 자리에 서서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는 데는 무엇을 주어야 하느냐? 참것을 주어야 합니다. 탕감제물로서가 아니라 제사장을 대신해서 참것을 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 자신들을 주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들의 심정을 옮겨 주라는 것입니다. 희생하라는 거예요. 기성교회와 여러분을 두고 볼 때, 여러분 가정들 또는 통일교인들이 기성교회 목사를 대하여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인 대표자가 기성교회 목사요, 아벨 대표자가 여러분입니다.

이제 통일교회는 물질적인 면에 있어서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길이 앞으로 열릴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것입니다. 물질이 생겨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은 사람이 있을 때 백 배 효율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사람 수가 적을 때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10만 명 되는 많은 사람보다도 백 명의 사람이 더욱 귀하다는 것입니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몇백 배의 효과를 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러한 입장을 취해서 섭리해 나오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물질적인 축복의 때가 틀림없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때가 오면 기성교회를 어떻게 복귀하느냐? 여러분에게 돈이 있으면 가인을 거쳐서 그 돈을 쓰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복귀하는 방법이 그것입니다. 가인을 거쳐서 쓰라는 거예요. 또, 생활을 하는 데도 가인과 더불어 의논해서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가인 아벨의 생활의 원칙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타락은 의논하지 못한 데서 비롯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대화하면서 생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세계는 자기의 욕망을 중심삼고 출발했기 때문에 이것을 탕감복귀하기 위해서는 내 욕망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의 욕망을 존중해야 합니다. 찬사장이 아담을 존중시켰더라면 타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상대방을 존중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중심삼고 생활하지 말고 기성교회 교역자를 중심삼고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기성교회 교역자는 앞으로 우리 통일교회의 지도 간부들보다도 점점 생활이 궁핍해질 것입니다.

우리 통일교회가 기성교회를 넘어설 때 그들과 같은 입장에 서라는 것입니다. 같은 입장에 서서 그들로부터 동정을 받지 말고 오히려 그들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통일교인들은 이제 70년대에는 다 걷어치우고 나가야 됩니다. 별 거숭이 몸으로 나가야 합니다. 나가서 여러분이 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고향입니다. 환고향하려면 버리고 가야지요. 고향으로 돌아갈 때는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짐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가진 것을 가인에게 넘겨 주면 가인이 그것을 받아서 관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고향 땅에 가면 그것이 자기 것이 됩니다. 부모의 것이 되고, 내것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 주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그런 작전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선생님은 여러분에게는 안 주었지만 기성교회를 위해서는 많이 주었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초교파운동을 통해 여러가지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나라를 위해서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련소를 짓는 것은 대한민국을 위해서입니다. 대한민국에 주기 위해서입니다. 주는 데는 우리가 쓰고 남아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빚을 저 가면서 귀한 것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뜻적으로 볼 때, 70년대가 안팎으로 모든 탕감적인 내용을 갖추는 데 있어서 중요한 시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미국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특권을 갖기 위해서는 자기 국내의 부흥을 꾀하는 것보다도 세계의 부흥을 위해서 기쁘게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세계는 민주주의권내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복귀노정입니다. 그것을 못 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도피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여러분이 가인을 굴복시키기 위해서는 주어야 합니다. 가인 세계는 외적세계, 즉 외적 세상이기 때문에 그들을 좋게 해주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것은 뭐냐? 먹는 것, 입는 것을 주면 됩니다. 즉, 그들이 사는 데 있어서 좋은 것을 주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쁜 음식을 먹으면서 좋은 음식을 그들에게 주고, 내가 나쁜 옷을 입으면서 그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내가 나쁜 집에 살면서 그들을 좋은 집에 살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완전히 굴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들을 완전히 굴복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노정을 가자는 것입니다.

이 민족을 대해서 그럴 수 있는 통일가가 되었느냐 할 때, 그런 통일가가 됐다 하면 우리는 이 민족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세계를 대해서 그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면 대한민국은 세계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방법이 간단하다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먹고 입고 사는 것을 그들보다도 우리가 주도하는 입장에 서 있고, 그들 앞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입장이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것을 몰랐습니다. 이것을 못 했습니다.

선생님은 선생님에게 먹을 것이 생기게 되면 그것을 선생님이 먹겠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를 생각했습니다. 입을 것이 있으면 선생님이 입겠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입힐 것이냐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활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집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위해 주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전부 쓰고 나가는 것입니다.

30-276

중앙수련소를 짓는 의의

그러므로 이번에 수련소를 짓는 것도 우리를 위해서 짓는 것이 아닙니다. 순전히 나라를 위해 짓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 달 이내에 지어야지, 6개월 동안에 짓게 되면 사탄세계로부터 들이 맞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책임을 지고 정성을 다해서 공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나무 하나를 세울 때도 정성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이 수련소가 역사를 뒤집어엎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제일 시급한 것은 인적 자원 문제입니다. 여기서 잘하게 되면 인적자원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무한한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 일에 직접 관여해 가지고 밤이든 낮이든 가리지 않고 힘들어 떨어질 정도로 일해 왔습니다. 한 달 이내에 이것을 전부 끝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쉬었기 때문에 이것을 탕감하기 위해서 더욱 서둘러야 합니다. 선생님의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실제로 6개월이 걸려야 지을 것을 한 달 이내에 짓게 된다면 우리 통일사상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겠는가! 여기에 들어와서 교육받는 사람들이 이 수련소 역사를 두고 '통일교회는 나라를 위해 이렇게 봉사했구나' 할 수 있는 좋은 재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집이 선생님이 이제까지 지은 집 가

운데 제일 큰 집이 되어야 합니다. 알겠어요? 「예」 이 수련소를 짓는 것은 교회보다도 나라를 위하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니 제일 크게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집터를 닦는 데 있어서 어느 누가 보더라도 한 단계 낮게 해서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선생님은 절대 낮게 해서 짓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높이 해서 지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은 곳을 다 메워서 평지로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무모한 짓이라고들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것입니다.

땅을 메꿀 때 젊은 사람들을 끌어다가 일을 시키니까 어떤 녀석은 하기 싫어서 인상을 쓰고 있더군요. 선생님이 어제 저녁에도 이런 얘기를 했지만, 수련생들 가운데 어떤 녀석은 선생님만 보게 되면 막 도망가려고 합니다. 선생님한테 불려갈 것이 틀림없거든요. 선생님이 불려서 일을 시킬 것 같거든요? (웃음)

여러분, 선생님이 먹을 것이 없어서 이런 일을 해요, 입을 것이 없어서 이런 일을 해요? 왜 그러겠어요? 선생님은 정성을 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작업장을 하루에 두 번씩 드나들며 돌아봅니다. 선생님이 만약 드러 누우면 며칠이고 잘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선생님이 신경을 얼마나 쓰는지 여러분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옆구리도 절리고 그래요.

오늘도 상당히 피곤하지만 피곤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선생님 일생에 있어서 정성들인 모든 물질적 조건을 걸고 나라를 위해 큰 건물을 짓고 있기 때문에 피곤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이 나라의 탕감역사를 짊어지고 애국애족하겠다는 그런 관을 세워 놓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일대에 응당히 할 일을 할 수 있는 찬스를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성을 다 들여 이 건물을 짓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겠어요. 이제 다 짓게 되었으니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진정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자꾸 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30-278

70년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

여러분들은 이제 기성교회 목사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굶고 있거든 쌀 한 가마니를 가지고 가서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내게 이것밖에 없지만 나눠 먹읍시다' 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쌀 한 말이라도 절반 이상을 갖다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완전히 사이가 좋아질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은 먹는 것, 입는 것, 가진 재산 이런 것들을 그들에게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야곱은 이러한 천법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재산, 즉 소나 양 등의 가축과 종들까지 전부다 형에게 주면서 '이것은 형님 것입니다' 하고 했던 것입니다. 그는 이 법도를 믿었던 거예요. 그는 절대 죽어서는 안 된다고 했던 것입니다. 부모를 슬프게 해서 안 되겠다고 생각할 때, 재산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효(孝)할 수 있는 길, 나라에 충(忠)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나서는 데 있어서 방해자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효하고 충하는 데에 에서가 방해할 것임을 알았던 야곱은 에서를 굴복시켜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1년 동안 수고해서 얻은 모든 재산을 에서에게 몽땅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 통일교회는 가난해서 좋습니다. 우리가 기성교회에 몽땅 주더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먹혀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손바닥밖에 없다 이겁니다. (웃음) 그러니 눈물과 피땀을 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눈물을 주고 피땀을 주는 것이 마지막으로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귀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 통일교회를 세워 나온 것입니다.

선생님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 '무엇을 줄 것인가? 내게 가진 것이 없으니 눈물을 주고 피땀을 주자' 항상 이런 심정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렇게 기도한 뒤에는 여러분이 굴복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떨어져 나가고 싶으면 나가라는 것입니다. 누가 망하는가 두고 보자는 것입니다. 나갈 때는 걸어나갔지만 언젠가는 틀림없이 다시 엉금엉금 기어들어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기성교회 목사들이 상당히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오며 가며 고기라도 몇 근씩 사다 주고 그들에게 얘기들이 있으면 만두라도 좀 사다 주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도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해주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기성교회를 대하여 생활적인면에 있어서 작전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작전을 제일 먼저 해야 할 가정이 어떤 가정이나? 기성교회의 목사 가정과 전도사 가정입니다. 알겠어요? 「예」 그것을 여러분이 하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그들의 가정을 돌보려면 돈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돈을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지급해 주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준 돈을 받아서 여러분이 먼저 쓰고 남은 것을 그들에게 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행 5:1-11)에 나오는 아나니아 부부의 얘기를 알지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재산을 판 것은 가인을 사랑하기 위해 서인데 그것을 감추었기에 망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만 성공하면 그들을 복귀하는 것은 문제없습니다. 그런 때가 틀림없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70년대에 우리가 할 작전은 그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목사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들이 우리를 쳤지만, 이제는 안팎으로 비약한 통일교회를 볼 때,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당할 수 없음을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를 원수시하던 그들을 원수시 않고, 기쁜 마음으로 그들의 가족을 돌보아 주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예」 그 일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먹을 것이 있으면 언제나 가인에게 먼저 주라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이 있을 때는 먼저 알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인을 복귀하지 않고는 승리의 자리에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가정적으로 가인을 복귀하지 않고는 통일가가 승리의 자리에 못 나가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예」 축복가정들의 대다수가 지구장, 지역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번 기회에 이 일을 실천하여 사탄세계가 참소할 수 없는 기준만 넘어서면 가인 복귀는 간단한 것입니다. 알겠어요? 「예」 간단한 것입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원리원칙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성교회와 통일교회가 하나되면 대한민국을 구하는 것은 문제없습니다. 그런 작전을 하면 틀림없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대한민국이 하나되면 세계를 구하는 것은 문제없습니다. 그 작전을 하면 틀림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승리를 결정지을 수 있는 비법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예」

30-280

전통사상을 인계받아 총진군하라

선생님은 지금 베란다에 있는 2층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기들이 다치고 어찌고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그 애들을 고생시켜서는 안 되겠기 때문에, 우리들의 후손을 고생시켜서는 안 되겠기 때문에, 선생님이 고생해야 할 때가 다 지났기 때문에 이번에 이 건물을 짓고는 선생님의 집을 좀 지어야겠습니다. 그걸 보면 이제 때가 얼마나 가까이 왔는가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원리적인 입장에서 살아 나왔기 때문에 아무리 핍박받더라도 망하지 않고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알고 이런 전통적인 사상을 지녀서, 여러분의 필생의 목적을 중심삼고 가게 되면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아요. 망하는 자리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큰 복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결코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 사는 것만 해도 다행으로 알고 감사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예」

우리는 이제 4월부터 힘차게 총진군하여야 되겠습니다. 4월은 언제나 사건이 많았던 달입니다. 우리는 사위기대의 4수를 밟고 넘어가야 합니다. 4월부터 6월까지도 언제나 사건의 달입니다. 원리적인 입장에서 볼 때 4수로부터 6수를 거치는 과정에서는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취하는 공세는 선의 공세입니다. 그렇지요? 「예」 빼앗기 위한 공세가 아니고 주기 위한 공세입니다. 이것은 웃으면서 싸우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어차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숨어 있다가 기습하는 것이 아니고 드러내서 하는 싸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기습하는 것이 아니고 나팔을 불면서 깃발을 들고 나가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전법이 최고의 전법입니다. 알겠어요? 「예」 이 전법을 써서 이기는 날에는 우리를 점령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점령할 자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돌아가게 되면 더욱 열심히 생활해야 되겠고, 여러분의 움직임이 달라져야 되겠습니다. 알겠지요? 「예」 *

© 2013 - 2014 hdhstudy.com | [Contact Us](#)

- [RSS](#)